

# 제휴카드 할인율 협상 완결과 자영제과점 할인카드 참여 마무리

## 제휴카드 할인율 10% 확정

비대위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제휴카드 문제가 할인율이 10%로 확정되면서 일단락됐다. 할인율 결정과 더불어 SK텔레콤과 협의에 나선 자영제과점 할인 서비스 문제도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자영제과점은 이제 다시 같은 출발선상에 서게 됐다.

글\_김영주 기자 · 사진\_ 유성원 기자(비대위 사무국)

지난해 12월부터 ‘이동통신사 제휴카드폐지 및 생존권보호 제과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와 프랜차이즈 3사, 통신업체가 지속적인 협상을 펼쳐왔던 제휴카드 할인율이 10%로 확정됐다. 비대위와 프랜차이즈 3사, SK텔레콤, KTF, LG텔레콤에서는 3월 1일부터 제휴카드 할인율 10% 조정에 합의하고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고객들에게 고지서나 인터넷을 통해 공고함에 따라 할인율이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는 휴대폰 제휴카드를 이용해서 20~40%나 할인해주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프랜차이즈 3사, 10% 할인율 조정에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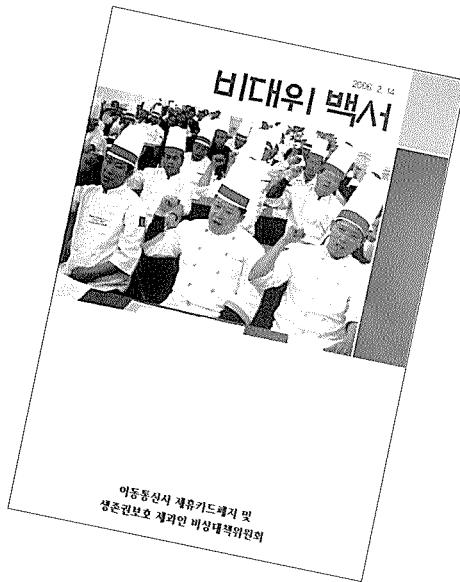
지난해 1월 26일, 대한제과협회 비대위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지난 12월부터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할인율 조정에 대한 마지막 회의가 이날 열렸기 때문.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 비대위 공동위원장 8명, 프랜차이즈 3사 대표자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그동안 협의해 온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고 결정짓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영모 회장은 “길고 길었던 제휴카드 협상의 마무리를 짓는 단계인 만큼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 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협상의 문을 열었다. 프랜차이즈 3사와 비대위 위원장들은 각자의 입장과 협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3월 1일부터 할인율을 10%로 낮추자는데 동의하는 협약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10% 할인율이 결정됨에 따라 제휴 카드 문제는 이제 완전히 마무리됐다. 프랜차이즈와 이동통신회사에서는 고객들에게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통보하고 비대위에서는 ‘제과업계 이통사 제휴할인 10% 합의’라는 제목으로 각종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제공해 대외적으로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

## 자영제과점 SK텔레콤 카드 할인

비대위가 제휴카드 문제를 할인율 폐지가 아닌 조정으로 선회하면서 SK텔레콤에 계속해서 요구해오던 자영제과점의 SK텔레콤 제휴카드 할인 서비스 역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SK텔레콤이 전산망 구축, 결제시스템 운영, 수수료 등에 따른 비용을 일체 부담하기로 하고 자영제과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대행업체를 선정해 비대위에 통보해왔다.

자영제과점의 시스템 구축과 사후 관리를 맡게 된 SK텔레콤의 대행업체 (주)큐앤피스는 이미 비대위와 협의를 갖고 자영제과점과의 본격적인 제휴에 앞선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자영제과점의 SK텔레콤 카드 할인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



되지 않은 상태. 비대위에서는 우선 회원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지회지부에 공문을 보내 SK텔레콤 제휴카드 서비스를 원하는 자영제과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주)큐엔에스와 비대위 간에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서 빠른 시간 내 자영제과점에서도 SK텔레콤 카드 할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취하 · 비대위 백서 발간

비대위는 제휴 카드에 대한 협의가 확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취하'를 접수하고 파리바게뜨와 SK텔레콤 제소를 취하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소를 내부사건 종결로 마무리 지었다.

비대위는 활동이 하나 둘 마무리됨에 따라 그 동안의 활동 내용을 총정리한 <비대위 백서>를 지난 2월 14일자로 발간했다. <비대위 백서>에는 그동안의 투쟁 내용과 활동사진 등이 담겨져 있으며 프랜차이즈 3사가 사인한 공정거래 협약 이행각서를 비롯해 보도 내용, 투쟁성과,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문서들이 알기쉽게 정리돼 있다. 그동안 제휴 카드 투쟁의 실무를 담당했던 비대위 탁정현 사무국장은 <비대위 백서>에서 "이번 투쟁을 통해 이동통신사 할인 제휴카드의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평등하게 진행됐던 제휴카드 문제가 공평하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활동은 자영제과점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출발선에 공평하게 섰다는 의미로 자영제과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고 투쟁성과를 밝혔다.

제휴카드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기업간의 단합으로 불평등했던 시장 시스템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개편됐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자영제과점들이 기술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 관련 활동일지

### 2003

- 07/16 SK텔레콤 및 KTF에 자영제과점 카드제휴 추진 불발
- 08/30 파리바게뜨 이외 6개 프랜차이즈 업체에 제휴카드 할인 자체 요청 무응답

### 2004

- 10/26 파리바게뜨 대표 미팅에서 제휴카드 할인 금지 요청에 긍정적 검토 약속 받음
- 10/29 긴급 전국지회장회의 개최 및 연명부 작성 시작

### 2005

- 05/04 SK텔레콤 관계자 미팅에서 제휴카드 제과점 사용 금지 요청
- 05/11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SK텔레콤 대표이사에 제휴카드 철회 요청 문서 발송
- 05/12 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 SPC 그룹 허영인 회장 만남 요청
- 05/24,27 SK텔레콤 및 SK(주) 대표 미팅 요청했으나 결렬
- 06/01 가칭 투쟁위원회 발기인 대회
- 06/16 '이동통신사 제휴카드폐지 및 생존권 보호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결성 공동위원장 8명 선출
- 07/26 비대위 전국대의원대회 소집
- 09/12 비대위 사무국 본격 가동
- 09/29 소식지 발간—전국 자영제과점 및 정부단체, 국회, 언론사 등 홍보
- 10/13 Siba 2005 행사장 내 제휴카드 폐지 서명 운동
- 10/18 비대위 홈페이지 오픈
- 10/19 이동통신사 및 프랜차이즈 업체에 제휴카드 철폐 요구 1차 공문 발송
- 10/21 1차 공문 답변 없어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에 2차 공문 발송
- 10/27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 제소
- 11/07 전국 지회 · 지부장 비상대회 개최해 전국자영제과인 투쟁 결의대회 주인
- 11/24 SK텔레콤 관계자 면담—(사)대한제과협회 중심의 제휴사업 약속
- 11/25 비대위 공동위원장 긴급회의 개최해 전국자영제과인 투쟁 결의대회 연기 결정
- 11/28 전국 지회 · 지부장 회의 개최로 투쟁 결의대회 연기 인준
- 12/02 프랜차이즈 3사와 할인율 조정 회의 개최
- 12/07 SK텔레콤과 1차 회의
- 12/13 1차 의견 조율 회의
- 12/19 2차 의견 조율 회의
- 12/26 공동위원장 회의 - 할인율 확정 및 시행시기 최종 논의
- 12/27 뚜레쥬르와 크리운베이커리에 최종적인 합의사항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
- 12/28 이동통신사와 제휴 맺은 자영제과점에도 최종 합의 사항 전달

### 2006

- 01/03 공정거래위원회에 제휴카드 할인율 협의는 담합 여부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 확인
- 01/12 이동통신사 3사 및 프랜차이즈와 3월 1일부로 10% 할인율 시행 결정
- 01/17 비대위 위원장 공식적인 문서화로 최종 마무리 작업 논의와 자영제과점 참여 문제 협의
- 01/26 SK텔레콤과 최종 마무리 회의 및 자영제과점 참여 문제 논의  
프랜차이즈 3사와 공정거래 협약 이행각서 교환
- 02/01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취하서 접수. 공정위 내부 사건종결로 제휴카드 문제 처리